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6호 【루계 제26230호】 주체107(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집단적혁신의 불길드높이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

평안남도의 당조직들에서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활성화하는데 화선식정치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과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전하여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2.8직동청년탄광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탄부들이 생산돌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 아래단위 당조직들에서는 탄부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고있다.

련합기업소와 순천탄광기계공장 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중공강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순천탄광기계공장 당조직에서는 기술자, 로동자들이 착암기부분품생산에서 걸린 기술적문제를 해결한 기세로 계속 힘찬 돌격전을 벌리도록 정치사업을 드세게 들이대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은 굴진소대와 채탄중대들에서 창조되는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제때에 소개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리고있다. 천성청년탄광과 명대탄광의 일군들은 탄부들에게 석탄생산을 정상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깊이 심어주어 막장마다에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탄광들을 맡고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조직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탄부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또한 자력갱생기지에서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대중정치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호소성이 강한 전투속보를 비롯한 직관물들을 게시하고 탄부들을 새 기록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화력탄보장을 맡은 탄광들에 채굴설비와 자재, 부속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기본생산단위들에 나간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도록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여 전투장들이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또한 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발전설비의 대당 출력을 높이고 전력생산을 늘이도록 하고있다.

순천화력발전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 당조직에서도 전투장마다에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배치하고 화선식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전력생산투쟁에 떨쳐나선 대중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포성으로 온 일터를 비료생산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생산자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전투장 그 어디서나 위훈창조에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도록 조직사업을 따라세워 세멘트생산자들이 증산돌격운동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하고있다. 또한 대중을 고무추동하는 직관선전물들을 기동적으로 게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탄광과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화선식으로 진행되는 정치사업으로 하여 전투장마다에서는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삼지연군건설에 필요한 물동 집중수송

철도운수부문에서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삼지연군건설에 필요한 물동집중수송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철도성적으로 12월에 들어와 지난 20일까지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많은 량의 물동을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에 집중수송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전시수송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삼지연군건설에 필요한 물동집중수송전투에서 계속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일군들은 집중수송에 동원된 기관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회귀일수를 줄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에만도 삼지연군을 여러차례 찾아주신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한 평양철도국과 함흥철도국, 개천철도국, 청진철도국의 일군들은 유일사령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운행중 집중수송렬차들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 삼지연군건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삼지연군건설에 필요한 물동집중수송을 맡은 서평양기관차대, 위연기관차대, 회천기관차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증송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 수리부문의 수송전사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많은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집중수송에 동원된 기관차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붉은기》5424호, 《붉은기》6006호의 승무원들은 우리 혁명의 고향군,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을 하루빨리 살기좋은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illegible]를 책임적으로 하고 철길의 기술상태에 따르는 앞선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집중수송렬차의 검사와 화차수리정비를 맡은 만포객화차대, 청룡차량대 명당렬차검사대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발휘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꾸리기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특히 청룡차량대 명당렬차검사대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화차상태에 대하여 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수리전투를 벌리며 세멘트집중수송렬차들을 지체없이 목적지로 떠나보내고있다.

각 철도국아래 역과 철길부문의 수송전사들도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수송성과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천수백km의 도로기술개건 진행

전국각지에서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도로기술개건이 힘있게 벌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전국적으로 천수백km의 도로가 기술개건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건설과 관리를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으며 국토의 면모도 일신할수 있습니다.》

각지 당조직에서는 뜻깊은 올해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도로기술개건전투가 힘차게 벌어졌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된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기술개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에서는 올해에 도로기술개건사업의 중심을 모든 도로의 폭을 확장하는데 두고 힘있게 내밀었다.

회양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철령도로의 기술개건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수천m^3의 잰돌을 생산하여 수십리구간에 깔아 도로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보다 높이였다.

세포군에서는 5개의 콩크리트다리를 새로 건설하여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하였다.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끓이며 분발해나선 원산시, 천내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도로기술개건전투에 떨쳐나 기세를 올리였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대중의 비상한 애국충정,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최대한 폭발시킨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근로자들을 도로기술개건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근로자들은 280여km의 도로에 대한 폭확장과 곡선펴기, 구배낮추기, 암거공사 등을 진행하고 20여개소에서 이미 있던 다리를 콩크리트다리로 개건하였다.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의 불길높이 남포시에서도 도로들에 대한 콩크리트포장과 잰돌깔기를 진행하였다.

라선시에서는 라진지구의 도로기술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성토와 절토, 옹벽쌓기, 도랑석축공사를 진행하여 수십km의 도로기술상태를 개선하였다.

본사기자 전명일

다음해농사차비를 실속있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음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자급비료생산에 력량을 집중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는 다음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여 11월말까지 논밭갈이와 보판만들기를 결속한데 이어 백수십만t의 자급비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정해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력량을 집중하여 다음해농사차비를 다그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다음해농사차비전투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제때에 수행하도록 조직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운전군이 자급비료생산을 다그치면서 농사차비에서 앞서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자급비료생산과 실어내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태천군에서는 군급기관 일군들이 작업반과 분조들을 맡고 내려가 정치사업도 하고 농사차비에서 걸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초급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힘있게 발동하고있다. 그 과정에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자급비료생산을 150% 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의주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많은 도시거름을 농장포전들에 실어내고있다. 성서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농장들에서 질좋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정주시와 동림군, 염주군과 곽산군에서도 자급비료생산과 실어내기, 보판자재확보, 랭습지개량 등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운데 맞게 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원료확보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협동벌마다에서 농사차비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수천정보의 흙깔이전투에 진입

황해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천정보의 흙깔이목표를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투에 진입한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도적으로 계획된 면적의 근 절반에 달하는 흙깔이를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다음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았다. 특히 지력개선에서 중요한 흙깔이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정산군의 협동벌이 흙깔이전투로 끓어번지고있다.

군일군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지력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떨쳐나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계획된 면적의 많은 몫을 해제낀 기세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룡궁, 청수협동농장에서는 모래자갈이 많은 포전들에 진흙을 깔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지력이자 알곡수확고라는것을 명심한 농업근로자들은 달구지와 뜨락또르, 화물자동차 등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많은 진흙을 포전에 실어내고있다.

상원군에서 흙깔이실적을 올리였다.

특히 흑우농장에서는 올해농사를 결속한 즉시 흙깔이전투에 진입하였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더욱 은이 날수 있게 조를 뭇고 물이 새는 포전들에 대한 흙깔이를 진행하였다.

봉산군에서는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과 필지별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흙깔이목표를 면밀하게 세우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묘송, 오봉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기름진 땅에 알찬 이삭이 주렁진다고 하면서 많은 량의 진흙을 포전에 실어내고있다.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서도 흙깔이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김성진

흑연생산능력확장공사 마감단계

흥산광산에서

흥산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흑연생산능력확장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턱형파쇄기와 백수십m의 콘베아설치를 비롯하여 흑연생산의 선행공정인 파쇄 및 운반계통공사가 결속되였다. 덩지큰 여러대의 마광기조립과 전동기, 뽐프, 각종 부분품설치작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 속에 능력확장공사는 90%계선을 넘어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철광산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일군들은 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데 맞게 중요설비들에 대한 조립을 질적으로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금속공업성 일군들의 방조밑에 여러 단위와의 협동작전을 잘하여 중요설비제작과 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며 흑연생산능력확장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4.15기술혁신돌격대의 전투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중량이 수t이나 되는 여러대의 마광기조립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운반설비를 제작하여 중량물운반을 책임적으로 진행한 이들은 많은 설비, 자재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보장하고있다.

재마광기설치를 맡은 기술자, 기능공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각종 치차와 장입떨개, 배출떨개, 전동기, 감속기 등 설비, 부분품조립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장단위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능력확장공사에 필요한 설비, 부분품제작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동림광산기계공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여 10여대의 감속기, 수직광액뽐프를 빠른 기간에 생산보장하였다.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마광기원통제작에 필요한 4종에 10여개의 부분품을 제때에 만들어 능력확장공사에 이바지하였다.

이밖의 여러 단위에서도 많은 설비, 부분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흥산광산과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공사성과는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전혁철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 적극 추진

함경북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m^3의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고 1만 수천m^3의 부재와 방대한 량의 골재를 생산한 기세로 건설을 계속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자들이 국가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누가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량심을 묻으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다고, 당정책관철을 위해 위훈의 구슬땀을 바쳐온 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발전소언제가 쌓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언제건설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당지도소조에서는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언제건설을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째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보온대책을 세우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언제건설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능숙한 사업전개력과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당, 행정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밀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내고있다.

자동차1, 2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 여러 단위 운전사들은 부재수송이자 언제의 높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수송실적을 올리고있다.

설비조립 및 전기자동화1, 2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달은 실히 걸려야 하는 기중기해체와 운반, 조립을 한주일동안에 해제낀 기세로 계속 혁신하고있다.

송평건설사업소와 사봉건설사업소에서는 부족되는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설비보수기일을 앞당겨가고있다.

무산광업건설사업소, 김책건설사업소, 건축1직장, 건축7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겨울철조건에서도 부재수송과 암반까기, 콩크리트치기를 중단없이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은정건설사업소에서는 합리적인 보온방법탐구에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가족들은 돌격대를 뭇고 현장에 달려나가 로력적지원과 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도녀맹위원회와 도안의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많은 량의 부재와 골재를 생산하여 언제건설을 다그치는데 기여하고있다.

도안의 많은 단위에서 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함경북도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언제건설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일심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친 승리의 해

한해가 저물어간다.

해마다 이즈음이면 사람들은 걸어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군 한다.

누구에게나 지나온 날과 달들에 대한 추억은 참으로 많고많을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회오리치는 그 모든 추억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 불타는 지향이 진하게 깔려있다.

이 땅 그 누구에게나 물어보라.

과연 무엇으로 하여 그렇듯 지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발휘하며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는가를.

그러면 대답할것이다.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따라온 우리 인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맞받아뚫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에 넘쳐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뜨거운 열망이였다고.

그렇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의 피줄을 잇고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강위력한 힘이 있기에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 영광의 해로 빛나게 아로새길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한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주체107(2018)년이 세계에 준 충격은 컸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돐과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는 그 하루하루가 보통의 백날, 천날과도 대비할수 없는 참으로 격동적인 나날이였다.

새해 정초부터 온 한해 불철주야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107(2018)년 혁명실록의 갈피를 더듬어보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그이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승리떨쳐온 영광의 나날에 대한 추억이 밀물처럼 차오른다.

올해 우리 인민이 걸어온 진군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부족한것도 많았고 애로와 난관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 인민에게는 그 모든것을 과감히 짓부시며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걸어올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 있었다.

올해 1월의 이야기들이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것은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 어느날이였다.

과학전시관에 전시된 수많은 과학연구성과자료들과 전시품들을 보아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것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을 돌아보시며 대단히 기쁘다고,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교직원들은 교육사업의 담당자,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교육사업에 불타는 애국적열정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년초에 찾으셔야 할 곳도 많으시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과학교육부문에 먼저 새기시였던가.

온 나라 전체 과학자들과 기술자, 교육자들에 대한 대해같은 믿음과 기대의 발현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돌아보시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해당 단위의 일군들로부터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기적같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고, 미더운 과학자대군이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한것이라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것 아니랴.

이렇듯 올해 1월 과학교육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지닌 시대적사명감을 더욱 깊이 새겨주신데 이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애국충정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크게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기에 과학을 해도 오직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하겠다는 억척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았고 우리의 미더운 교육자들은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갔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대형보이라들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소－무연미분탄착화 및 연소안정화기술 도입, 농업부문에서 염기견딜성이 강한 새 품종의 논벼를 비롯하여 다수확우량품종의 논벼와 밭벼를 새로 육종,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탐구전, 창조전의 불길속에 2회전나무모생산을 위한 우리 식의 설비들을 설계제작…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속에 올해 우리의 자립경제의 공고성과 무한대한 발전잠재력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지난 1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무궤도전차를 더 많이,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 수도시민들이 리용하게 하는것은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사업인 동시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옹호고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무궤도전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이 진행해야 할 2단계개건현대화목표를 정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고 시험운행을 진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8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송신궤도전차사업소를 찾으시여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신데 이어 깊은 밤 그 시운전까지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지난번에 타보았을 때보다 내부환경과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높아지고 전차운행시 소음과 진동도 적어졌다고, 모든 기술적특성지표가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그리도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보고 또 보시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가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에게 뚫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사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진 우리 인민이다.

이렇듯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안으시고 온 한해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평양제약공장을 찾으면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가 울리고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 들려보면 저장고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있는 젓갈가공품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숟갈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뜨거운 심중을 터치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가 없다.

올해의 삼복철은 례년에 없는 혹염으로 하여 몹시도 무더웠다.

그러나 자연의 무더위보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소식으로 온 나라 강산이 불덩이마냥 달아올랐던 계절이였다.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땅 끝이라도 기어이 가시려는 열화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는 조국땅 방방곡곡에 삼복철강행군의 자욱자욱을 끝없이 새겨가시였다.

그 길에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해기슭의 한끝 신도군을 찾아가신 물결사나운 배길과 감탕길도 있었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 헤치신 험한 산골길도 있었다.

삼복철기간에만도 조국땅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였으니 우리 원수님의 로고가 얼마나 컸으랴.

행복한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멀고 험한 길도 스스럼없이 걸으시고 몇밤을 지새우신 피로에 잠기셨다가도 인민에게 기쁨이 될 창조물을 보시면 만시름이 풀리신듯 환히 웃으시며 힘이 난다고 하시는분, 인민을 위한 고생에서 오히려 보람과 희열을 느끼시는분이기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멸사복무의 강행군길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건설의 대번영기와 더불어 펼쳐진 자랑찬 화폭들은 또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여주는것인가.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지만 모든것이 어렵고 긴장한 오늘과 같은 시기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에서 련속적인 성과를 확대해나가는것은 적대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중포화로 되며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대중적영웅주의, 견인불발의 투지를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투쟁본때,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 우리 식 발전속도를 만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하자고 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건설자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세상이 또한번 놀라고 부러워할 인민의 문화휴식터, 인민의 해양공원이 다음해 10월 10일을 맞으며 보란듯이 일떠설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명사십리전역에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과감히 돌진해나가자고 힘주어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행복, 인민의 리상향이 얼마나 귀중하시였으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삼지연군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였고 인민에게 안겨줄 재부가 얼마나 귀중하시였으면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꾸려질 경성군과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거듭 찾아가시며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으랴.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믿음에 백옥같은 충정과 결사관철로 보답하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 우리 인민은 산악처럼 떨쳐나섰다.

조국의 동해기슭에 장쾌한 선경으로 펼쳐진 고암－답촌철길,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또 하나의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아담하게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삼지연군 읍지구,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명한 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으로 꾸려지고있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인민군대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에 펼쳐진 물고기폭포, 원산구두공장의 신발풍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어야 하며 이 땅의 천만자식이 행복의 웃음꽃을 한껏 피울 때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국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는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온 한해를 정력적인 헌신으로 이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속에 참다운 삶도 행복도, 아름다운 희망도 꽃펴난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하였기에 이 나라 인민은 위대한 어버이 그 품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일심단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터치던 만세의 함성, 인민의 두볼로 끝없이 흘러내리던 감격의 눈물은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다함없는 행복과 긍지의 분출이기도 하였다.

일심단결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굴의 헌신사를 수놓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칠 때 그 단결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며 일심단결로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조국청사에 더욱 뚜렷이 새긴 긍지높은 한해였다.

주체조선의 강위력한 힘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친 주체107(2018)년에 대한 값높은 추억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올 철석의 신념을 안고 우리 인민은 새해 주체108(2019)년의 하루하루도 위대한 기적과 변혁, 거창한 승리로 빛내일것이다.

본사기자 정 순 학

혼연일체의 숭고한 세계

필승의 선언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의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세차게 고동쳤다. 그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오늘도 뜨거운 격정속에 들려온다.

올해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지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입니다.

정녕 새해의 첫아침 하늘땅을 진감하며 울려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선언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기어이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으며 장엄한 진군길의 출발선에 나선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준 필승의 선언이였다.

승리의 원동력

지난 10월 어느날이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으로 기적을 창조해가는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날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명사십리건설현장을 돌아보며 머지않아 인파십리로 변할 그날이 벌써 보이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나라사정이 의연 어렵고 긴장하지만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쟁함을 자기의 주되는 투쟁과업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이 새 세기의 문명을 개척하며 정확한 령도력으로 새 세계를 설계해나가고있고 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나서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단결된 힘이 있기에 이 땅우에는 비단 해안관광지구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인민의 소유물들과 새로운 행복이 멈춤없이 일떠서고 창조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된 그이의 말씀을 되새기며 일군들은 일심단결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동력임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뜻깊은 기념사진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 불쑥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신발풍년을 보았다고, 공장에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질좋은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흡족하고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는 구두를 더 많이, 더 멋있게 만들어냄으로써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리하여 12월 3일부 《로동신문》 2면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원산구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찍은 뜻깊은 기념사진이 모셔지게 되였다.

공장에서 울려나오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에서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를 들으시는듯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한 기쁨을 안고 그이의 품에 안긴 일군들과 종업원들…

이런 불멸의 화폭은 원산구두공장만이 아닌 이 땅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다.

그렇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가 된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반드시 누구나 부러워하는 천하제일락원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수필

조선의 모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무기입니다.》

누구에게나 한해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에 대한 추억이 있다.

그 소중한 추억의 갈피를 감회깊이 더듬어보는 우리의 뇌리에 취재길에서 체험한 하나의 감동깊은 사실이 되새겨진다.

얼마전 우리가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공장정문에 들어서니 새파란 색으로 산뜻하게 도장한 뜨락또르들이 렬을 지어 빼곡이 서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도 사열행진을 하려고 서있는 열병대오를 방불케 하였다.

흐뭇한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감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결사관철의 정신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온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천리마－804》 호뜨락또르들에 정겨운 시선을 보내고있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막아나서고 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철석같이 믿으신것은 전세대 뜨락또르생산자들의 고결한 넋과 투쟁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열망에 넘쳐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이였다.

우리와 만난 공장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온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입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돌이켜보면 새형의 80hp 뜨락또르의 설계도면과 형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락또르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공장에 찾아오시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잊지 못할 나날을 추억길이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움은 인간의 고상한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 인민처럼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사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뜻을 받드시여 인민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의 위대한 심장속에는 오직 사랑하는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우리는 인민들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 별을 따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투쟁강령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세상 천만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으로 인민을 품어주고 내세워주시기에 인민의 그리움은 그처럼 끝이 없는것 아니랴.

거창한 창조대전이 벌어지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불타는 소원》의 노래를 절절히 부르며 기대를 돌리고 농장벌을 가꾸어가는 인민의 모습을 볼수 있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

바로 여기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의 원동력이 있다.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빛나는 승리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흘러온 올해의 날과 달들이 이것을 다시금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휘황찬란한 래일을 내다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는 심장으로 웨친다.

그리움으로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 그것은 조선의 힘, 그 무엇으로써도 지울수 없는 조선의 영원한 모습이라고.

본사기자 김 일 권

어은혁명사적지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정 철 훈 찍음

활발하게 벌어지는 위대성교양사업

함흥련결농기계공장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성교양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부터가 당보를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물에 실리는 위대성교양자료들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들끓는 현장에 나가 사상교양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한 일군은 작업현장에서 종업원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휴식참에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풍모를 보여주는 위대성기사에 대한 독보를 진행하였다.

그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들어가며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는데 대한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난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켜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로동통신원 리 금 희

경제선동대활동과 증산돌격운동의 불길

지금 우리 인민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고있다.

오늘의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맹렬히 벌려야 하며 여기에서 경제선동대활동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일터마다 혁명적열정과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창조와 혁신의 기백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경제선동대활동은 예술, 웅변, 직관, 방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과 방법을 배합하여 생산현장에서 선전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전격적으로 벌리는 우월한 정치사업방법이다. 경제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야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들이 언제나 혁명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을수 있으며 생산자대중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경제선동의 힘찬 포성이자 경제건설대진군의 활력이고 우리 조국의 전진비약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경제선동대활동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천만의 심장을 쾅쾅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로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도록 하였다.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적로정은 기백있고 호소성이 강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온 나라를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한 경제선동대활동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금 우리가 벌리고있는 증산돌격운동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이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도 경제선동대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전사들을 돌격에로 부르는 진격나팔소리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떠미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나가는데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의 승리가 있다.

경제선동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들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경제의 지속적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기 위한 웅대한 전략이다.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으며 여기서 경제선동대활동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경제선동대활동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대중에게 강한 사상정서적충동과 감흥을 주고 그들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경제선동대들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피가 끓게, 열정이 용솟음치게 선동사업을 벌리면 생산자대중이 증산돌격운동의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해나갈수 있게 된다.

경제선동대활동의 또 다른 특성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 첨입식정치사업방법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의 심리와 사상적준비정도, 공장, 기업소들이 맡고있는 혁명과업도 각이한만큼 경제선동대활동을 고정격식화된 틀에 매여 하게 되면 실효를 나타낼수 없다. 일할 때나 쉴참이나 그리고 지하막장과 배머리, 기대옆과 논두렁, 산판 등 그 어디에서나 경제선동대활동을 참신하게 벌려야 대중이 당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된다. 출근길방송과 직관선동, 혁신자축하모임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대활동을 진공적으로 드세차게 벌려나갈 때 증산돌격운동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어 누구나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당이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다.

경제선동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람들을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은 단순히 지표별계획이나 수행하고 경제건설의 일정한 단계에서 어느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열혈의 애국투사들로 키우자는데 증산돌격운동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남의 도움으로는 언제 가도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진정한 애국은 바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남김없이 발현되여야 한다. 자력갱생정신이 맥박치는 경제선동대활동을 힘있게 벌려야 대중이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는 진리를 뼈속깊이 쪼아박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될수 있다.

누구나 거창한 창조대전이 벌어지는 오늘날 자신들이 사회주의조국이라는 거목을 떠받드는 뿌리라는것을 명심하고 창조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여기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것을 심어주는 경제선동대활동을 강화하면 그 어디에서나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적이 창조되게 된다. 최근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각 도 집중경제선동대들의 경연은 화선식경제선동으로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경제선동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모든 경제선동대들은 혁명의 북소리, 진군나팔소리를 높이 울림으로써 오늘의 전인민적인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용 일

우리 당 붉은 기폭에는 이런 참된 당원들의 모습도 어려있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개건현대화공사에 자진하여 애국헌신의 땀을 바쳐가는 5명 로당원에 대한 이야기

락원의 10명 당원, 락원의 8명 당원을 배출한 나라의 서북변 관문도시에서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로당원들의 이야기가 또다시 울려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나설줄 아는 사람만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할수 있으며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11월 중순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신의주시의 로당원들이 개건현대화공사가 힘있게 벌어지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에 자진하여 달려나와 애국헌신의 땀을 바쳐가고있는 사실을 아시고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값높은 치하를 받은 방인덕, 김진, 성태영, 김명선, 김정만동지들,

락원의 10명 당원, 락원의 8명 당원이 당에서 준 혁명과업, 성스러운 당결정을 어떻게 결사관철해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가르쳐주었다면 이들의 삶은 생의 끝까지 당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야 하며 붉은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숭엄히 새겨주고있다.

그들을 부른 사람은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찾으신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월초 어느날 김정만동지의 집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여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소.》

마치 공장에서 일하다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직접 만나뵈옵기라도 한듯 격정을 금치 못한 로당원.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건설직장 목공작업반 반장으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온지 몇달 되였지만 30여년세월 하많은 땀을 바치고 깊은 정을 기울인 공장을 지난 시기나 다름없이 나의 공장, 우리 공장으로 여기는 그였다. 우리 공장이 당의 뜻대로 팽팽 돌아가지 못하는데 나이가 되였다고 일손을 놓은것이 어쩐지 죄스럽기만 하다고 늘 외웠으며 내가 이제 공장을 위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가라고 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였던것이다.

톱과 마치를 비롯한 손때묻은 공구며 작업복을 찾아 차곡차곡 가방에 넣는 그를 안해와 딸이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김정만동지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로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는데 작업반장까지 한 내가 가만 있을수 있소. 공장에 나가서 못 한개라도 박아야지.》

그에게 공장에 나오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출근길에 다시 나선 김정만동지의 귀전에는 자기를 찾는 우리 작업반, 우리 당세포의 정깊은 부름이 쟁쟁히 울리고있었으니 그것은 성실한 로동계급, 참된 당원만이 새겨안을수 있는 시대의 요구, 혁명의 요구, 당의 부름이였으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의 목소리였다.

그 부름은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떠난지 30년이 지난 성태영동지의 가슴도 쾅쾅 두드렸다.

그는 10여년전 평안북도품질감독국에서 열감독사업을 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첫 세대 열관리공이라는것을 잊지 않고있었다. 공장에서 열관리공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정기사, 책임기사로 20여년간이나 일한 그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발자취가 깃든 공장, 자기의 당생활이 시작되고 보람찬 로동생활이 흘러간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이 변함없이 정든 일터로 간직되여있었다.

당의 신임으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열감독사업을 맡아보면서도,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마음 한끝은 언제나 사회생활의 첫발을 뗀 공장에 두고있었던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을 개건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소식에 접하여 솟구치는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공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간 그는 당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섰다.

《나를 보이라직장 열관리공으로 받아주십시오.》

당위원회 일군은 열관리공을 하겠다는 그의 청을 들어줄수 없어 여든살이 가까운 나이에 왜 꼭 그런 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정 일을 하고싶으면 다른 직장에서 보다 쉬운 일을 하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그때 성태영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공장의 심장부인 보이라컬에서 조선로동당 입당청원서를 읽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공장의 숨결을 지킬데 대한 당적과업을 주십시오.》

스스로 어려운 당적과업을 달라고 하는 로당원앞에서 당일군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보이라의 웅글은 동음이 가락맞게 울리는 작업현장에 들어섰을 때 로당원의 심장은 얼마나 세차게 높뛰였던가.

(당원 성태영,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일흔일곱살의 로당원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에 우러르며 이렇게 삼가 아뢰이던 그날의 화폭을 그려보는 우리의 가슴도 뜨겁다.

당원은 자각적인 선봉투사이다. 당에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면 그들은 설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원으로서 할 일을 남먼저, 스스로 찾는다. 그 높은 당적자각과 의무감은 세월의 흐름도 육체적로쇠도 지우지 못한다.

방인덕, 김진, 김명선동지들은 지난 시기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생산현장에서 일한적이 없다. 공장과 련관된 부문에 종사하였을뿐이다.

지난 7월초 어느날 김진동지는 신의주시 남상동에 자리잡은 자기 집에서 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손녀의 숙제공부를 도와주고있었다. 풀기 어려운 자연과목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때마다 손녀는 함박꽃같은 웃음을 머금었다. 그의 얼굴에도 느슨한 미소가 흘렀다. 이때 며느리가 다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실린 신문을 내놓았다.

김진동지는 남다른 흥분속에 혁명활동보도를 읽어내려갔다. 지난 기간 국가과학원 화학섬유연구소, 종이공학연구소에서 일하였으며 갈프로부터 종이를 뽑는 기계인 초지기에 정통한 기술자이고 공학박사인 그의 눈빛이 차츰 심각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에서 중시하고 기다리는 종이생산공정개건현대화사업이 잘 안되고있는데 대하여 심려하신 사실을 알게 된것이였다.

(우리 도를 찾아 머나먼 길을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걱정을 끼쳐드리다니…)

박사구실을 톡톡히 못했다는 뼈아픈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일군들의 청탁을 받을 때마다 이따금 제지직장현장에 나가 봐주는것으로 만족해온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아바이가 한번씩 나와 걸린 기술적문제를 풀어주는것만도 큰 힘이 된다고 하던 제지직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괴로와하겠는가.

(동무들, 날 용서해주오.)

깊어가는 밤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룬 김진동지!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종이생산공정의 개건현대화가 잘 안되고있는 책임을 그에게 따져물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의 로당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당적량심, 과학자로서의 량심을 낱낱이 헤쳐본것이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맡은 일터에서 하루하루 성실한 땀을 바치고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것은 다름아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것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한생도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것이 바로 우리의 로동당원들인것이다.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선 김진동지는 출근길에 오른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종업원들의 물결에 섞어들었다.

5명의 로당원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방인덕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소식을 로상에서 들었다고 한다.

화학공업성 제지설계사업소(당시) 소장사업을 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언제 한번 집에서 편히 쉬여본적이 없다. 방방곡곡의 여러 화학섬유공장, 종이공장에서 1급설계가인 그의 방조를 수시로 요청한것으로 하여 그는 설계원들과 함께 드바쁜 출장길을 쉬임없이 이어갔던것이다.

그날도 도안의 한 종이공장을 다녀오는 길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한 방인덕동지는 뻐스에서 내리자바람으로 신의주화학섬유공장으로 향하였다. 동행하였던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섬유종이설계연구소 일군이 년로한 몸으로 제지에서 수고가 많았는데 집에 가서 로독이나 푼 다음 나오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지만 그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부르시는데 힘들다고 우물거리면서야 되겠소. 가야 하오. 빨리 가야 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부르신다!

이 하나의 생각이 그를 재촉하고 걸음발에 힘을 돋구어주었다.

섬유종이설계연구소에서 일하다가 몇해전에 년로보장을 받은 신의주시 류상1동의 김명선동지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의주화학섬유공장개건현대화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마주하였다.

그가 심장병으로 고생하고있는것을 잘 아는 연구소일군이 건강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겠는가고 걱정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절절히 당부하였다고 한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십시오.》

당원의 의무.

국가가 제정한 로동년한에는 비록 끝이 있다고 해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야 할 당원의 의무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신의주시의 평범한 로당원들은 인생말년에 힘있게 내짚은 애국헌신의 자욱으로 새겨주었다.

당의 원대한 구상이 펼쳐지는 곳에 당원인 자기가 해야 할 일감이 꼭 있으며 바로 그것을 위해 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어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부강조국건설의 고임돌이 되여야 한다는 남다른 자각이야말로 참된 당원들이 간직한 순결한 당적량심, 높은 당적의무감이 아니겠는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시오!

인생말년에 다시 일손을 잡은것만도 만사람의 찬양을 받을만 하다. 하지만 우리의 로당원들이 후더운 땀을 바치고 심혈을 쏟은 나날을 돌이켜보느라면 그들의 고결한 충정과 헌신, 불같은 열정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참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대답이 그속에 있다.

기술과제서작성은 개건현대화의 선행공정이다. 방인덕동지가 이 일을 솔선 맡아나섰을 때 일군들은 기쁘기도 하고 은근히 우려하기도 했다. 섬유종이설계부문에서 50년나마 일한 그의 능력을 믿어의심치 않았지만 80고령의 몸으로 방대한 기술과제서작성을 단시일내에 할수 있겠는가.

침묵을 깨치며 그의 엄숙한 대답이 울렸다.

《20일동안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20일!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였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으로 만들고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 로당원은 삶의 한초한초를 어떻게 불태웠던가.

숨이 턱턱 막히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방인덕동지는 한시도 설계실을 떠나지 않았다. 온몸이 땀주머니가 되고 다리가 부어올랐다. 한쪽으로는 공정체계도, 기계배치도를 비롯한 설계도면을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건설규모와 투자액 등에 대한 계산을 하였다. 때로는 밥도 설계실안을 오가면서 먹고 눈이 충혈되여 참을수 없을 정도로 쓰리면 눈약도 선자리에서 넣었다.

10여일간의 격전끝에 그가 계획한 날자를 이틀이나 앞당겨 완성한 기술과제서초안을 내놓았을 때 설계연구소 일군들은 믿어지지 않아 눈을 부비였다. 방인덕동지가 전후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영예군인이며 몸에 중요한 장기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잘 알고있었다.

섬유종이설계연구소 일군인 하철용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감동시킨것은 방인덕동지의 뛰여난 설계능력보다도 당이 제시한 과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수행하려는 고결한 마음과 불굴의 정신력이였습니다. 그 불같은 정신력은 우리 일군들과 설계원들로 하여금 그가 영예군인이며 80고령의 몸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게 하였습니다.》

방인덕동지가 설계과제수행에서 큰 몫을 맡아할 때 김진동지는 우리 나라 원료인 갈에 전적으로 의거하는 종이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전투가 벌어지는 제지직장현장에서 지혜와 열정을 바쳐갔다. 그는 아침이면 남먼저 출근하여 설비가동상태를 깐깐히 알아보았으며 시험생산을 하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생산되여나오는 종이필에 주름이 지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천정트라스보다 더 높은 설비꼭대기로 가파로운 사다리를 타고 한치한치 톺아올랐다.

어느날 그는 여느때없이 일찍 직장을 나섰다. 예견하였던 시험생산이 취소되여 직장일군들은 집에 들어가 쉬라고 그를 떠밀었던것이다. 그런데 얼마후 시험생산이 다시 제기되여 직장에서 설비들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가 가쁜숨을 톺으며 현장에 들어섰다. 어떻게 알고 나왔는가고 하는 직장기술자들에게 그는 공장굴뚝을 가리켰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저 연기가 알려주더구만.》

그 말에 기술자들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집에서 공장굴뚝을 보려면 웃몸을 아빠트창문밖으로 한껏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낮이나 밤이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 원료로 생산한 종이가 펑펑 쏟아질 그날에로 마음달린 로당원, 순수 갈로 만든 새 종이가 나왔다고 누구나 기뻐할 때에도 그 종이의 지합과 평활도, 백색도 등을 따져보며 더 질좋은 종이를 만들기 위한 방도를 모색한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가.

지난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질이 퍼그나 좋아졌다고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신 순수 갈로 만든 종이에는 애오라지 당과 수령께 기쁨드릴 한마음으로 온넋을 바쳐온 김진동지의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도 깃들어있다.

보이라직장 명예종업원이 된 날부터 성태영동지는 매일매일 량심의 기록을 남겼다. 그가운데는 이런 대목도 있다.

《10월 12일.

이틀동안 심한 감기를 앓고나서 출근하였는데 직장일군들이 몹시 수척해졌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떠미는 바람에 나약하게, 비겁하게 되돌아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전투장에서 당원답지 못하게 행동한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매일매일 자기의 당생활을 스스로 총화하는것은 수십년전 그의 입당보증인이며 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이였던 오랜 열관리공이 그에게 붙여준 습관이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당생활을 심각히 돌이켜본 성태영동지, 비판을 듣는 사람도, 비판을 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고 티없이 깨끗한 당적량심의 비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단련하였다. 그러한 당적수양과 혁명적단련이 그로 하여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로동자들과 꼭같이 벽돌짐도 지고 보이라본체와 기타 설비들에 대한 순회점검길도 이어가게 하였으며 송풍기와 배풍기설치를 비롯하여 보이라기술개건에서 나서는 어려운 기술적문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그 해결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뛰여다니게 하였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일군들은 5명 로당원에게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늘 신신당부하군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전투원의 삶으로 이어갔다.

5명 로당원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젊은 김정만동지는 공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폐수정화장개건에서 나서는 목공작업을 비롯한 많은 일감이 그를 기다렸다. 뼈가 저리게 힘들수록, 개건현대화되는 공장의 곳곳에 자기의 구슬땀이 슴배일수록 그는 무한한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공장 연혁소개실에는 천리마대고조시기 로력혁신자였던 그의 아버지사진이 있다. 집에는 1950년대 후반기에 아버지가 받은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이 있다. 고난의 시기 공장이 숨을 죽이다싶이 하였을 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갈섬유와 종이를 비롯한 많은 제품을 창고가 넘쳐나도록 생산한 아버지세대앞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하기에 그는 뭇사람들이 그 재간이면 편안하고 생활조건이 유리한 일터로 가고도 남았겠다고 할 때에도 변심없이 일터를 지켜왔다.

우리와 만났을 때 김정만동지는 말했다.

《지금처럼 속이 후련하고 기뻐보기는 처음입니다. 로동자야 그저 일감이 많은것이 제일이지요.》

김정만동지가 전세대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이어 공장에 필요하고 조국에 필요한 많은 일감을 맡아안고 긍지와 보람에 넘쳐 생의 하루하루를 빛내이고있다면 김명선동지는 당의 품속에서 기술을 배운 지식인의 순결한 량심을 고이 지켜가고있다.

한달전 공장의 개건현대화에 필요한 건축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에 몰두하던 김명선동지는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심장병이 악화된것이였다.

얼마후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 그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일군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치료실을 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설비현대화에 앞서 생산건물과 생산환경부터 일신하라고 하시였는데 내가 맡은 건축설계가 미흡하거나 늦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총총히 멀어져가는 그를 바래우는 의료일군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지난 11월 16일 공장 문화회관에서는 뜻깊은 모임이 있었다.

도당위원회 일군이 연단에 나섰다.

《어제 우리 도를 찾으시여 신의주시 전설총계획을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진하여 공장에 나와 일하고있는 로당원들인 방인덕, 김진, 성태영, 김명선, 김정만동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요란한 박수가 터져올랐다.

회관객석의 맨 앞줄에 앉아있던 로당원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만사람이 모인 자리라는것도 다 잊고 소리를 내여 격정의 울음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그들이 걸어온 길!

그 무슨 덕을 바라서, 그 어떤 대가를 위해서였던가.

애오라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따라나선 길이였다. 설사 자기들은 덕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후대들이 행복을 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로당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택한 길이였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시오!

자애로운 그 음성이 울린 순간은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이 로당원들의 참되고도 고결한 애국충정의 마음을 따뜻이 감싸안아 온 나라 인민앞에 높이 내세워준 영광의 순간, 행복의 순간이였다.

바로 그날 김명선동지의 집으로 일군들이 찾아왔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로당원동지들을 아끼고 위해주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입니다.》

그들의 간곡한 이야기를 듣는 로당원의 주름진 얼굴로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오늘도 5명 로당원은 신의주화학섬유공장개건현대화전투장의 어려운 초소에서 자기의 지식과 기술, 성실한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 *

신의주시의 5명 로당원!

지난날의 일터도 당생활년한도 각이한 그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이라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생을 불태워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스스로 련제없는 산림감독원이 되여 조국의 푸른 숲에 남모르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고 온 한해 바람세찬 벌에서 곡식을 가꾸며 오랜 세월 진거름과 파철을 모아 농업전선과 강철전선에 보내주는 전국각지의 수많은 로당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당의 사상과 위업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가는 로동당원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이 어리여 우리의 당기폭이 그토록 붉고 그 펄럭임 또한 그렇듯 힘찬것이 아니겠는가.

생이 다할 때까지 당에 충실하리라!

이 하나의 지향과 의지를 안고 오늘도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참된 로당원들에게 조국과 인민은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본사기자 허명숙

방직설비부속품생산에 힘을 넣어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방직설비부속품생산에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로동계급은 60여종에 수만개의 년간 방직설비부속품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춤이 없이 계속 혁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참모부에서는 늘어나는 방직설비부속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공장개건현대화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조건에서 맡겨진 방직설비부속품생산을 동시에 내밀기 위해 공정별련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소재보장대책을 따라세웠다.

소재부문의 생산자들이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주물직장의 로동자들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필요한 주물소재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종전에 비해 높아진 알루미니움소재생산계획을 근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공장의 전투목표점령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단조직장의 로동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작업반별경쟁을 벌려 맡겨진 단조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가공부문에서도 련일 혁신이 창조되였다.

가공직장의 로동자들은 기대별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으로 매일 많은 량의 부속품을 생산하였다.

정밀가공작업반에서는 제품의 기술적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능률적인 가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부속품의 정밀도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공구직장의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여러가지 가공품생산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공무동력직장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앞선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며 증산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자재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필요한 자재를 제기일에 보장하여 부속품생산을 적극 추동하였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방직설비부속품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주인된 자각을 깊이 심어주어

배천군 수복리당위원회에서

올해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농장벌마다에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도록 추동한 배천군 수복리당위원회 사업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수복리의 올해농사조건은 례년에 없이 불리하였다.

논밭갈이와 농작물의 비배관리에 필요한 영농자재들도 부족하였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된 왕가물과 큰물피해까지 겹쳐 농작물의 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그럴수록 이곳 리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에서 바라는 다수확운동이 단순히 쌀을 더 생산하는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일군들과 당원들,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병, 농촌의 참된 주인이라는 자각을 백배, 천배로 높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리당조직들에서는 농촌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농촌의 참된 주인, 애국농민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리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계화작업반에서 이동식탈곡기들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진행될 때의 일이다.

탈곡기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기계화작업반 기능공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였다.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동식탈곡기들을 완성하여 작업반들에 내보내야겠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날자만 흘러가니 속이 탔다. 일부 작업반원들은 설비제작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하면서 이에 손맥을 놓고있었다.

그런 때 그들을 찾아 한달음에 달려온 일군이 있었다.

리당위원장이였다.

활기를 잃은 기계화작업반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리당일군은 이렇게 절절히 말하였다.

이동식탈곡기들을 만들어내야 할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들이다. 예비는 바로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

리당위원장의 절절한 호소는 리재호동무를 비롯한 기계화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 열정의 불을 달아주었다. 그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전투장에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그리하여 기계화작업반에서는 계획했던 이동식탈곡기들을 제기일에 완성하여 가을걷이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사업에 기여할수 있었다.

리당위원회가 일군들과 당원들,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병, 농촌의 참된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준것은 비단 이때뿐이 아니다.

올해 례년에 없는 고온현상과 장마철 큰비에 의해 농사조건은 말할수 없이 어려웠다. 그러나 김태식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리당위원들은 자연과의 치렬한 대결전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농장벌 한복판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이신작칙하면서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자각을 백배, 천배로 높여주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의 역할도 높여주어 그들이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삶의 요람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쌀로써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애국농민이 되도록 이끌어주게 하였다.

그 위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당원들, 농장원들은 리소재지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농산제7, 8, 11작업반을 비롯한 리안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 포전마다에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농장은 올해 알곡수매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었다.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은 각지 농업부문 당조직에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수호자, 농촌의 참된 주인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나갈 때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1돐기념

풍경화 및 수공예품전시회 개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1돐기념 풍경화 및 수공예품전시회가 21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정면에는 유화 《정일봉에 오르시여 조선의 해돋이를 부감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가 정중히 모셔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아크릴화 《만민의 축원》, 조선화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와 수령결사옹위를 삶의 전부로, 드팀없는 신조로 간직하시고 언제나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담은 유화 《몸소 보초병이 되시여》도 정중히 모셔져있다.

이번 풍경화 및 수공예품전시회장에는 조선화, 유화, 수예, 공예품 등 11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화 《회령의 봄》, 《2월의 소백수》, 《혁명의 전구》, 아크릴화 《밝아오는 장군봉》, 유화 《삼일포의 가을》, 《무포로 가는 길》, 수채화 《초소의 새 소식》을 비롯한 작품들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아로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을 뜨겁게 되새겨보게 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화폭에 담은 조선화 《대동강의 새 전설》, 유화 《황금해의 아침》, 《석전만의 새 모습》, 수예 《사랑의 보금자리》 등도 있다.

전시회장에는 이밖에도 《김일성화김정일화장식화병》, 《모란장식다반》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금속공예품, 도자공예품들도 전시되여있다.

전시회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모를 박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자강도와 황해남도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자강도에서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해당 일군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이 사업에서 일군들이 앞장서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교육사업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강계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하여 5층과 7층으로 된 대학교사와 기숙사, 체육관, 보조건물습식공사가 이미 끝나고 마감공사와 지대정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시, 군들에서 본보기학교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적으로 10개의 본보기학교건축공사가 끝나고 그 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있다.

도에서는 교육기관들에 현대적인 교육실험설비들을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내밀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강계제1사범대학의 실험실습실들을 훌륭하게 꾸릴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강계제1사범대학과 강계제2사범대학,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 강계제1중학교에 많은 교육설비들과 교육기재들을 마련해주도록 하고있다.

강계시에서는 장자산학교를 훌륭히 개건한데 맞게 교육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있다.

랑림군, 우시군, 희천시를 비롯한 시, 군들에서도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본보기학교건설을 적극 내밀면서 소학교들과 초급, 고급중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본보기학교꾸리기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현재까지 안악군과 재령군을 비롯한 여러 군에서 본보기학교들이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다른 군들에서도 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도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 적극 내밀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학교꾸리기정형을 주마다 료해한데 기초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또한 일군들과 후원단체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본보기학교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본보기학교건설정형을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재령군에 내려간 도당위원회책임일군은 건설력량을 꾸려주고 세멘트, 철근, 목재를 비롯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교구비품을 일식으로 보장해주게 하였다.

안악군에서는 후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본보기학교건설을 본때있게 내밀었다. 군책임일군들은 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자재를 해결해주어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였다.

옹진군, 은천군, 배천군에서도 본보기학교건설이 적극 추진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면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봉천군에서는 본보기학교건설을 끝낸 기세로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꾸리는데 힘을 넣고있다.

해주시, 신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본보기학교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우리 당의 숭고한 뜻 받들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과외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과외교양지도를 혁신적으로 진행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운데 맞게 그를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하여 올해에 전국의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청소년과외교양기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고 지도교원들의 교육수준과 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적극 일반화하였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더 잘 꾸리고 전국의 학생소년궁전들이 그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또한 야영소들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 성과를 이룩하였다.

얼마전에도 위원회에서는 연풍호소년단야영소에서 전국의 소년단야영소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의 경험교환회와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많은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게 하였다.

경험교환회에서는 야영생들속에서 5대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종합지식보급실을 운영하여 야영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상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 야영생들이 보트타기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지도록 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 등 좋은 경험들이 발표되였다.

뿐만아니라 과외교양기관 지도교원들의 교육수준과 기량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여러가지 성과와 경험들도 교환되였다.

연풍호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본 참가자들은 야영활동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전시회와 야영소관리에 리용되는 관리도구전시회에도 참가하여 많은 경험을 배웠으며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칠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이에 앞서 운산군학생소년회관을 전국적인 본보기로 새로 꾸리고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각지 학생소년회관들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번졌다.

결과 수많은 학생소년회관 소조실들의 다기능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현재 학생소년들의 과외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억세게 키우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의 불같은 열정과 노력에 의해 청소년과외교양기지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오은별

세 남매를 조국보위초소에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물판작업반 **심동길, 리춘옥부부**는 아들딸 세 남매를 훌륭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대후방가족이다.

실생활을 통해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치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더없는 긍지와 자랑으로 간직한 세 남매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자식들의 자랑이 담긴 편지가 고향으로 연방 날아올 때마다 심동길, 리춘옥동무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갈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초소에 보내고있다.

자식들에게 뒤질세라 심동길, 리춘옥부부는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고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있다.

로농통신원 원향란

논벼큰모재배기술확립에 바쳐진 애국의 열정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사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정종수선생

최근년간 농업부문에서는 논벼큰모재배기술이 급속히 확대도입되고있다.

지난 20여년간의 연구도입과정을 통하여 다수확논벼재배기술, 박막없이 농사짓는 기술, 논두벌농사와 간석지벼농사에 적합한 선진영농기술로 인정되고있는 논벼큰모재배기술은 논에서 유기농법을 실현하고 논벼농사를 과학화, 집약화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경제적실리가 이처럼 큰 농법을 연구도입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로과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올해에 84살인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사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정종수선생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을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정종수선생이 논벼큰모재배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한것은 1990년대 중엽이였다.

당시 우리 조국은 엄혹한 고난을 겪고있었다. 류례없는 시련의 파도는 농업부문에도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부족되는 비료와 농약, 연유, 겹쳐드는 자연재해, 줄어드는 농업생산량…

하지만 우리 인민은 오직 한마음 위대한 장군님만을 하늘처럼 믿고 따라나섰다.

그때 정종수선생도 조선의 농업과학자로서의 시대적사명감을 더욱 굳게 자각하며 스스로 논벼큰모재배라는 새로운 농법에 대한 탐구의 길에 들어섰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발전방향이 유기농법으로 전환되고있던 당시 이 농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우점으로 하여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있었으나 그 과학화수준은 매우 낮았다. 료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정종수선생은 이 농법이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단위정지면적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을뿐아니라 적은 량의 비료로도 높은 소출을 낼수 있다는것을 파악하게 되였다. 그리고 많은 로력과 영농자재, 농약 등을 절약할수 있는 매우 우월한 방법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러한 논벼큰모재배방법을 나라의 농업생산실천에 받아들이자면 우선 그 과학적담보부터 밝혀내야 하였다.

논벼농사에서 너무나도 오래동안 굳어져온 농법을 바꾼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새것의 탄생은 언제나 진통을 겪는 법이다. 새 농법에 대하여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고 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의 과학적량심까지 의심하였다.

정종수선생은 마음속괴로움을 참으며 꿋꿋이 자신을 이겨나갔다. 오늘은 비록 그들의 리해를 받지 못하지만 언제인가는 새로운 농법의 과학적원리도 인정되고 어떻게 해서나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에 이바지하려는 자기의 과학적량심과 신념을 증명할 날이 꼭 올것이라고 믿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키어이 끝을 보아야 했다. 그는 그 어느때보다, 그 누구보다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언제나 한본새로 탐구의 길을 걷는 로과학자의 연구사업을 당조직에서 적극 떠밀어주었다.

마침내 그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나이식을 내놓음으로써 논벼큰모재배방법의 도입가능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혀냈다. 이에 토대하여 과학자들과 함께 어느 한 농장에 나가 시험도입에 달라붙었다. 결과는 예상했던바 그대로 좋았다. 그러나 모판농사라고 불리울만큼 모를 크게 길러 논에 내야 하는 큰모재배방법은 종전의 방법에 비해 모뜨기가 힘들고 모판면적과 물동량이 많을뿐아니라 모내기를 기계화하기 어려운것을 비롯하여 그 도입에서는 상당한 애로와 난관을 겪어야 했다.

탐구의 생눈길을 이어가는 농업과학자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이였다.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업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노력이 깃든 논벼큰모재배방법의 도입정형도 료해하시면서 여러가지 농법을 적극 받아들임에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리고 큰모재배연구집단이 새로운 농법을 각지에 더 빨리 퍼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정종수선생을 비롯한 농업과학자들은 용기백배하여 분발해나섰다.

그들은 농업성을 비롯한 농업부문 일군들과 창조적으로 협조하면서 논벼큰모재배방법을 각지에 도입해나가는 한편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더욱 완성하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나날에 정종수선생은 된그루와 두벌농사뒤그루조건에서 큰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의 생물학적기초를 완전히 밝히고 과학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분얼비료수준과 소출형성능력 등을 확정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부학장 박사 부교수 박히룡선생과 당시 대학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방순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장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큰모재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논벼큰모재배기술은 정보당 소출을 1.5~2t이상 더 높일수 있는 다수확농법으로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오직 한마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스스로 택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농업과학자들을 어머니당은 자애로운 손길로 따뜻이 이끌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 논벼큰모재배방법을 확대도입하기 위해 각지의 농장을 메주밟듯 하는 농업과학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대로 그들에게 사랑의 승용차와 소형뻐스를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이 깃든 승용차와 뻐스를 타고 정종수선생은 80고령의 나이에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에 넘쳐 과학자들과 함께 서해안지구에서 동해안지구로 확대도입을 위한 길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 최근 2~3년동안에는 절세위인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에 나가 살다싶이 하면서 일군들과 농장원들과의 창조적협조속에 이 기술을 전면도입함으로써 농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과학자들과 농업성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논벼큰모재배방법은 전국각지 많은 면적의 논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나타내였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여든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 청춘의 활력에 넘쳐 지식과 기술로 나라의 농업생산에 묵묵히 이바지하는 과정에 정종수선생은 인민과학자로, 원사 교수 박사로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라서게 되였다.

애국적인 실천으로 빛나는 그의 인생길은 말해주고있다.

당과 조국을 위한 탐구의 길에서 과학적신념을 끝까지 지키라,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깨끗한 량심을 안고 끝까지 걸으면 과학자로서의 성공도 있고 인생의 영광도 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민족의 향취 차넘친 동지죽경연

인민봉사총국에서

동지날에 사람들은 동지죽을 맛보며 작은 설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화목을 도모하고있다. 얼마전 인민봉사총국에서는 동지죽경연을 특색있게 조직하여 동지날에 손님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민족음식을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갖추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민족음식들은 그 맛과 향기, 모양과 색갈이 독특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민봉사부문과 대외봉사부문의 우수한 료리사들이 참가하여 여러개 조로 나뉘여 진행된 인민봉사총국 동지죽경연에서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고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동지죽이 많이 출품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어느 단위가 동지죽의 고유한 맛을 다같이 잘 살렸는가를 참가자들 누구나 공정한 심사원이 되여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옥류관에서는 이번 동지죽경연에 지난해 경연에서 1등을 한 실력있는 료리사를 참가시켰다. 청류관 료리사들의 잡도리도 만만치 않았다. 옥류관, 청류관, 만경대천석식당, 옥류정혼식식당의 실무일군들은 동지죽이 고유한 붉은밤색이 나도록 기술지도를 세밀히 하였으며 다른 단위에서 동지죽만드는 과정도 놓치지 않고 주의깊게 관찰하였다.

창광봉사관리국에서는 동지죽에 넣을 오그랑이를 잘 만드는 특기를 가지고있는 공훈료리사 리선옥동무를 경연에 참가시켰다. 그는 함께 경연에 참가한 신진료리사가 시범출연까지 할수 있게 동지죽만드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있었다.

청류관 료리사들은 동지죽의 쌀알이 자기 형태를 잃지 않게 잘 익혀냈으며 해방산호텔과 평양호텔의 료리사들은 오그랑이를 빚을 때 쫄깃쫄깃하고 입안에 붙지 않게 반죽을 재간스럽게 하였다. 팥과 오그랑이, 쌀이 잘 어울리여 구수한 맛이 나는 평양수산물백화점, 창전해맞이식당, 평천각, 문수각에서 내놓은 동지죽들도 눈맛, 입맛이 다 별맛이였다.

경연장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이뿐이 아니였다. 경연참가자들이 동지죽만드는 우수한 료리방법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가 하면 동지죽풍습에 대한 해박한 상식들을 저마다 이야기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동지죽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는 죽의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민간에서는 흔히 훌륭한 며느리가 되자면 스무가지의 죽을 쑬줄 알아야 한다는 말까지도 생겨났다. 동지죽을 먹을 때 큰 오그랑이가 아이들에게 차례지면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에도 여러가지 죽이 있는데 찰수수가루나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오그랑이를 만들어 죽속에 넣어먹는 동지죽은 팥의 약효를 높여주는 영양가높은 음식인것으로 하여 해외동포들은 물론 외국손님들까지도 즐겨찾는다고 대외봉사부문의 료리사들은 구수하게 이야기를 펴나갔다.

경연장에서 우리와 만난 인민봉사총국의 일군은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팥죽경연을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민족의 음식문화를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경연장에는 민족의 독특한 향취가 짙게 흘러넘쳐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마음은 후덥기만 하였다. 우리는 민족의 우수한 음식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연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리수정

웰남군대절에 즈음한 연회 진행

웰남군대절에 즈음하여 메 바 빙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웬 꾸억 비엣 대사관 무관이 21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인민무력성 부상 륙군상장 김형룡동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웰남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 푸 쫑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진행되는 2018년-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8년-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제 비:평 양
녀자 제 비:리명수
4. 25체육단에서
남자 려 명:횃 불
소백수체육단에서
남자 소백수:갈매기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녀자 월미도:압록강
녀자 봉화산:소백수

23일(일요일) 오전 빙상관에서는 여러 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짧은주로속도빙상 경연경기가 있게 된다.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속도빙상 남, 녀경기가 25일부터 27일까지 부전군에서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도서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증산군출판물보급소에서 도서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해주고있다.

이곳에서는 보급원들이 뜻깊은 올해의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군안의 여러 단위에 나가 도서해설선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은 당의 의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도서해설선전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은 《우리 수령님》 등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담은 도서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뿐만아니라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도서들에 대한 보급사업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증산군출판물보급소의 보급원들은 오늘도 우리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들끓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도서해설선전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조정호

1950년대 영웅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끝없이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는 청년들
—청년운동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의료일군의 본분을 지켜

명천군 마산리인민병원 원장 **리영도동무**는 주민들로부터 우리 원장선생님이라고 정답게 불리우는 참된 보건일군이다.

그는 깊은 밤, 이른새벽,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하루일을 끝마친 원장이 저녁늦게 그날의 환자치료정형을 되새겨보며 다음날사업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데 갑자기 왕진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스스럼없이 왕진가방을 메고나섰다. 그가 병원으로 돌아온것은 한밤중이였다.

피곤이 무섭게 몰려들었다. 그가 조금 눈을 붙이려고 하는 때에 한 주민이 병원문을 두드렸다.

제6작업반에 있는 한 농장원의 병상태가 위급하다는 련락을 받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간 원장은 또다시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렸다.

창백하던 환자의 얼굴에 홍조가 비끼는것을 보면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새벽 3시가 되였다.

다음날 그의 수고를 두고 사람들이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환자치료사업은 우리 의료일군들의 응당한 본분입니다.》

사람들 누구나가 존경하는 의료일군인 그는 오늘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료예방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성철

주체조선의 영예떨칠 한마음으로 체육열풍을 일으켜온 나날을 더듬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은 국력을 강화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에 혁명적기상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의 곳곳에서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중체육의 열풍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며 이 과정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집단의 단결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기 위하여 훈련장마다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뿌려온 주체조선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올해에도 국제경기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신심과 락관을 더해준 대중체육활동

올해에도 우리 인민은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실천속에서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전국각지의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학교들에서 활발히 벌어진 대중체육활동과 더불어 앙양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기세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18과 제23차 백두산상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제6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제11차 전국농업근로자민족체육경기대회,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체신부문), 제49차 예술인체육대회 등 올해에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대중적인 체육경기대회들은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나날이 높아가는 체육열기를 잘 보여주었다.

이 경기들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평시에 꾸준히 련마해온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종목별경기과정에 선수들은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째인 경기전법과 높은 기술, 훌륭한 기교동작들을 펼쳐보였다.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대중체육경기들은 우리 인민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집단의 단결력,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잘 보여줌으로써 대중체육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올해에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이 더욱 장려되고 롱구열의가 높아졌으며 체육의 날은 물론 명절날과 휴식일을 법석 끓게 한 체육열기가 도시와 농촌, 어촌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열정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7, 8월해양체육월간, 8, 9월인민체력검정월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바다의 정복자들로,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들로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이바지할수 있게 준비해나갔다.

올해에 모범체육군, 모범체육단위칭호쟁취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평성시와 강동군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체육선수후비양성과 대중체육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과정에 모범체육시, 모범체육군칭호를 수여받았다.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평양조명기구공장, 해주트락또르부속품공장, 보천산소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종업원들속에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그들이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들과 체육기자재들을 그쯘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웠다. 그리하여 종업원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올해에 많은 단위가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드높은 체육열기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다그쳐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었다.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으로

올해에 체육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체육부문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국가적인 경기대회들을 년중 계속 조직하는것과 함께 체육단들에서 훈련경기와 검열경기, 도전경기, 패왕경기 등을 자주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올해에 태양절경축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공화국선수권대회,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기술혁신봉화상체육경기대회,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를 비롯한 많은 경기가 진행되였다. 이 경기들은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계기로 되였다.

평양체육단에서는 종목별로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독특한 경기전법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년초부터 힘있게 벌려왔다. 하여 올해에 레스링과 기계체조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기관차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에서도 우수한 체육기술과 변화무쌍한 경기전법들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왔다.

이 나날에 우리의 체육인들은 2018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고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였다.

특히 올해에 4종세계선수권보유자, 3종세계선수권보유자들이 배출되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여러 국제경기에서 우승하여 세계력기계에 널리 알려진 엄윤철선수는 지난 11월초에 진행된 2018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남자력기 55㎏급경기에서 특기기술인 폭발적인 힘에 의한 빠른 순간채기와 받아안기 등 련결동작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끌어올리기에서 120㎏을, 추켜올리기에서 162㎏을 들어올려 종합 282㎏의 성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20㎏이상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리고 금메달 3개를 쟁취하였으며 4종세계선수권보유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세계적인 기계체조강자인 리세광선수는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진행된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영예의 제1위를 하였다.

기계체조 남자 기계별결승경기 조마운동에 출전한 그는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난도높은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승의 단상에 올랐으며 3종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가 창공높이 휘날렸다.

박영미선수는 녀자레스링 53㎏급경기에서 높은 기술과 강의한 인내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1위를 함으로써 2018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이어 또다시 우승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3월말에 진행된 제11차 국제체조련맹 세계컵기계체조 개인기계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수정선수도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기계체조 녀자 기계별결승경기 마루운동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동작들을 우아하고 조화롭게 수행하여 제1위를, 평균대운동에서 제2위를 함으로써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여받았다.

력기선수들인 엄윤철, 리성금, 오강철, 최전위, 김효심, 림정심, 림은심, 김국향동무들과 녀자레스링선수 정명숙, 사격선수 박명원동무들도 훈련의 나날에 다지고다져온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으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태권도선수들도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빛내이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기대와 당부를 새겨안고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세련된 태권도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승컵 5개, 금메달 29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체육선수들은 2018년 아시아청년권투선수권대회, 2018년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 제33차 세계군대레스링선수권대회, 2018년 국제항공련맹 경기대회들, 제13차 청소년 및 제8차 로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제1차 세계군대활쏘기선수권대회, 제1차 아시아컵예술체조경기대회, 2018년 아시아컵카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영예의 제1위를 하여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었다.

체육연구원 과학자들과 체육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두뇌전, 실력전을 줄기차게 벌려 현실적의의가 있는 많은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체육과학기술정보사업을 크게 개선하였다.

올해에 진행된 제6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제22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해갈 온 나라 일군들과 체육인들, 교원, 연구사, 기술자들의 불같은 지향을 잘 보여주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부문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 과학자들의 줄기찬 사색과 탐구, 창조적인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더욱 강화된 물질기술적토대

올해에 전국각지에 체육시설들이 수많이 건설 및 개건됨으로써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된것은 체육부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성과이다.

체육성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체육인숙소를 최단기일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울 높은 목표밑에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성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체육인숙소를 일떠세울 불타는 열의를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건설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켜나간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청춘거리 체육촌에는 침실, 사무실, 도서실, 전술토의실, 의료실 등을 갖춘 체육인숙소가 건설되게 되였다.

성에서는 또한 력기경기관 보조훈련관을 일떠세울 목표를 세우고 시공을 맡은 수도건설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건설전투를 힘있게 내밀어왔다.

그리하여 올해에 력기선수들의 훈련에 큰 도움이 되는 력기경기관 보조훈련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우는 성과를 안아왔다.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전국적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되였다.

자강도에서는 체육관과 강계스키장건설을 위한 조직사업과 현장지휘를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강계시에는 선수 및 감독대기실, 심판원실, 한증칸이 딸린 목욕실 등을 갖춘 자강도체육관과 썰매 및 초급스키주로, 중급스키주로, 삭도, 수평승강기, 치료실 등을 갖춘 강계스키장이 일떠서게 되였다.

회령시에서도 시체육관을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선수들은 물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는 회령시체육관이 훌륭히 일떠섰다. 시에서는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능력이 큰 야외수영장도 꾸려놓았다.

평양시, 평안북도, 해주시, 봉산군, 청진광산금속대학을 비롯한 많은 지역과 단위에서도 체육관과 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였다.

뿐만아니라 평양체육단, 홰불체육단, 자강도태권도선수단을 비롯한 전문체육단위들에서도 훈련장들과 후생시설들을 개건하여 체육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나라의 체육을 보다 발전시키는데서 큰걸음을 내짚을수 있는 든든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의 체육정책관철을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온 체육부문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 과학자들, 온 나라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 길에 지울수 없는 자욱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전사회적으로 나날이 고조되는 체육열풍과 함께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힘찬 투쟁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주령봉

18th ASIAN GAMES
Jakarta Palembang 2018

물길굴건설장에 새겨진 고결한 모습

단천발전소건설 평양시려단 보통강구역대대 돌격대원이였던 리정림동무

리정림동무에 대한 단천발전소건설 평양시려단 보통강구역대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추억은 소중하다.

그와 단천전역에서 함께 생활한 기간은 수십일, 하지만 이곳 대대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하나같이 말하고있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뜨거운 인간, 한없이 고지식하고 인정미가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곳 대대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간직되여있는 리정림동무의 모습이였다.

위기일발의 순간 한몸 서슴없이 바쳐 동지를 구원한 그의 소행은 단천전역의 전체 전투원들에게 인간의 참된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은 당의 사랑과 추억속에 영생합니다.》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서 부원으로 일하던 리정림동무가 단천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나온것은 지난 8월 1일이였다.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되여 공장에 배치된지 1년반이 되여오는 나날 당세포위원장으로 일하던 그는 지난 7월 기업소일군들로부터 단천발전소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초급당일군을 찾아간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저는 조국보위초소에서 군관으로 복무해온 사람이며 당세포위원장입니다.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사복무의 나날이 흘러간 잊을수 없는 량강도땅의 건설장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되여 얼마후인 8월초 51살의 리정림동무는 량강도지구에서 23-2갱의 물길굴공사를 맡은 평양시려단 보통강구역대대 2중대 당세포위원장으로서 운반공일을 맡아하게 되였다.

갱에 첫 자욱을 찍은 그날부터 리정림동무는 돌격대원들의 앞장에서 버럭운반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말이 없는 과묵한 성격이지만 군사복무의 나날 이신작칙을 체질화해온 그는 대대의 굴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버럭을 실은 광차를 밀고 솔선 앞장에서 달리군 하였다.

동지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막장에서 발파후 다음작업의 첫 공정인 위험개소제거작업에는 언제나 그가 먼저 나서군 한것이다. 버럭상차작업에 앞서 자신이 먼저 정대를 들고 천반의 균열상태와 안전상태를 검사하면서 위험개소를 제거하고서야 중대성원들이 작업에 진입하도록 하여 대대지휘관들도 감탄하군 하였다.

이렇듯 높은 책임성과 이신작칙의 일본새를 발휘해가는 리정림동무에게 얼마후부터는 새 임무가 맡겨졌다.

당시 기본물길굴의 도갱굴진속도가 빨라지면서 광차보장이 따라서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문제를 풀자면 결정적으로 버럭상차와 광차기동속도를 높이는 한편 운반계통에서의 광차반출시간을 줄여야 하였는데 이 책임적인 사업을 리정림동무가 맡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보조공인 녀성돌격대원을 데리고 빈 광차를 신속히 대피선에 넣고 만적재한 버럭광차를 권양기련결고리에 걸어 반출시키는 등 운반작업을 민첩하게 벌려나갔다.

그의 일욕심과 능란한 솜씨로 하여 광차들의 운반회수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교대는 물론 대대적인 도갱굴진실적도 부쩍 올라갔다.

그러던 지난 9월 하순 어느날 리정림동무가 버럭광차를 권양계통에 맞물려 신속히 반출시킨 후였다. 또 한대의 빈 광차를 대피선에서 끌어내여 기본선로에 넣어주던 그 순간 요란한 굉음과 함께 쏜살같이 미끄러져내려오는 광차가 있었다.

위기일발의 그 순간 광차를 등지고 작업에 여념이 없는 보조공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들었다. 순간 그는 《비키라!》하고 웨치며 비호같이 몸을 날려 보조공을 밀쳐버리고는 중태에 빠져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려단일군들과 대대장 윤성일, 정치지도원 리청송동무를 비롯한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그와 함께 생활한 50여일간의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이른새벽마다 대원들과 갑산군 읍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찾아 정중히 인사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해온 사실도 말하였다.

중대당세포위원장이여서만이 아니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량강도땅에서 수십년간 군사복무를 하며 간직해온 변함없는 그 충정심이 언제나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앞장서게 하였고 위기일발의 순간 한몸 서슴없이 바쳐 동지를 구원하게 한것이였다.

당에 대한 불같은 충정과 뜨거운 동지적사랑으로 생을 빛내인 리정림동무의 고결한 삶은 오늘 단천전역의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통천군기초식품공장에서

제힘으로 생산정상화의 튼튼한 토대를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수십정보의 원료기지확보,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개선,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

몇해전까지만 해도 거의 주저앉다싶이 했던 통천군기초식품공장은 오늘날 그 면모를 나날이 일신하고 당정책관철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단위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해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자강력입니다.》

2년전 어느날 배치되여 처음으로 공장을 돌아보는 최명석지배인의 마음은 무거웠다.

무엇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적지 않은 종업원들은 원료, 자재보장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보다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자기 힘에 대한 믿음,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부족한것이였다.

생산건물건설만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착공한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났지만 군에서 자재를 대주면 내밀고 그렇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있다나니 골조만 세운데 머물러있었다.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의 기둥부터 세워주어야 하였다.

얼마후 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 공장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생산과 건설을 동시에 내밀 대담한 목표가 세워졌다. 당장 생산만 하자고 해도 힘든데 모든 일을 한꺼번에 밀고나가겠다니 어디 될 말인가고 머리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군들은 모든것을 동시에 그것도 최단기간에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이들은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끼니를 번지며 뛰여다니였다. 그러다가도 일단 전투현장에 들어서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오를 이끌었다. 새 가공설비제작전투장에 가서는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기발한 착상의 실마리를 틔워주기도 하였다.

일군의 이신작칙, 그것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위력한 선동이였다.

창조의 열매를 기어이 제손으로 가꾸어가려는 강렬한 지향속에 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이 나날 수백㎡에 달하는 공장구내가 단 며칠만에 번듯하게 포장되고 여러 생산흐름선이 정연하게 갖추어졌다. 이것을 계기로 종업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은 대단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시기보다 많은 량의 석탄을 절약할수 있게 보이라를 개조하였고 척박한 원료기지도 애국의 땀을 바쳐 기름지게 가꾸었다.

나날이 일신되여가는 공장의 모습과 함께 일터에 대한 종업원들의 애착심도 날로 커만 갔다.

모두가 자기 힘을 믿고 한마음한뜻이 되어 분발해나선 결과 오늘 공장에서 생산한 사탕, 과자, 빵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은 군내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하고있다. 2층짜리 새 전동건실을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 있으며 인민들의 요구를 제품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우리에게 최명석지배인은 말하였다.

《자력갱생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제힘을 굳게 믿고 자기 손으로 창조의 열매들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본사기자

참된 삶의 자욱을 수놓으며

수안군 읍 24인민반에서 사는 안성희녀성

수안군에 가면 군안의 전쟁로병들로부터 우리 딸, 우리 며느리로 정답게 불리우며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 녀성이 있다.

그가 바로 수안군 읍 24인민반에서 사는 안성희동무이다.

자기 가정보다도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할줄 알고 당이 바라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해전 8월초 어느날 안성희동무의 집은 밤깊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아버지가 제3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던것이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은정을 한시도 잊을수가 없구나.》

식구들을 둘러보며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안성희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안성희동무의 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조국을 지켜싸운 전쟁로병이였다. 아버지는 안성희동무에게 늘 조국의 귀중함을 새겨주었다.

그날 저녁 안성희동무는 아버지뿐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전쟁로병들을 잘 돌봐주는것이 새세대들의 응당한 본분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안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전쟁로병들을 위한 길에 나서게 되였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아버지가 전쟁로병대표들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아버지를 찾아와 서로 마주앉아 전투담을 펼쳐보이군 하는 전쟁로병들을 대할 때면 조국을 위해 피흘려 싸운 그들에게 바치는 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던 안성희동무였다.

군안의 전쟁로병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더욱 뜨거워만 갔다.

어느해 전승절에도 안성희동무는 군안의 수십명에 달하는 전쟁로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약들과 생활필수품, 각종 식료품들을 마련해주어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안성희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충정의 마음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자기의 지성을 바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그의 순결한 애국의 마음은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을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그는 이렇게 하는것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전쟁로병들의 마음을 합쳐 충정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그였기에 지난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삼지연군꾸리기사업에 기여한 자기의 자그마한 소행을 깊이 헤아려 보내주신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고 무한한 격정에 휩싸여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응당할 일을 한 나에게 이런 크나큰 영광이 차례지다니.)

너무도 크나큰 행복을 받아안은 그날 성희동무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의다지였다. 전쟁로병의 딸답게 조국과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리라.

그의 결의는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그는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듯이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잘해나갔다.

애국의 마음은 말로써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안성희동무는 이런 순결한 마음을 안고 오늘도 전쟁로병의 딸답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배천군 금곡로동자구에는 특류영예군인인 저를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중에는 일군도 있고 로동자도 있으며 학생도 있습니다.

특류영예군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준 사람들은 배천광산 일군들이였습니다.

특히 광산 2갱의 일군들은 저의 생일날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활용품과 귀한 보약재를 가지고 찾아와 건강을 념려해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친부모인들 이렇듯 다심할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젖어들군 합니다.

제가 료양치료를 받게 되였을 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광산책임일군들은 제가 치료를 받는 기간 불편이 없도록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의료일군들의 지성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배천광산병원 원장은 제가 다른 군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그곳까지 후송해주었으며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약재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후에도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많은 보약과 영양식품을 가지고 집에 찾아와 치료해주었습니다.

배천광산고급중학교의 리춘혁학생도 저와 한식솔처럼 지내고있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노래도 불러주면서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배천광산 과학기술보급실 실장은 제가 김형직사범대학 원격교육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지가지의 사실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아름다운 인간들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합니다.

배천군 금곡로동자구 53인민반 리금성

세계 진보적인류가 터친 위인칭송의 목소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를 받으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국제관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열도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창작발표된 시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시를 창작한 사람들가운데는 작가도 있으며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함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도 있다. 그들이 창작한 시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 위대한 향도자로 흠모하며 따르는 인류의 숭고한 지향과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한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유럽의 한 인사는 시 《김정일동지를 따라 걸으리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이여 물어보시라
그이께서 어떤분이신가를
언제나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향도성
그 향도성따라 인민들 신심드높이
시련의 고비넘어 승리의 상상봉에로 가네
아 그이는 인류의 앞길 찬란히 비쳐주는 광명성
이 세상 모든 고귀한것을 안아오시는 행복의 은인이시여라
…

필자는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에 탄복하여 이 시를 썼다고 한다.

로씨야의 한 력사학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는 시들을 썼다.

그로 말하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찬 탐구의 나날을 보내던 학자였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좌절된 자기 나라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였다.

희망과 포부를 잃고 세계를 방황하던 그에게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가 차례졌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서방의 선전이 황당한 궤변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는 엄혹한 속에서도 조선이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자주시대의 기수로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때문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그리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매혹되였다.

력사연구를 하면서 시도 즐겨 창작하던 그는 자주시대를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과 령도의 현명성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자기 나라에 돌아간 후 그는 시 《잊을수 없는 2월 16일》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수십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시들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탁월한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 당시 세네갈청년작가협회 위원장 마마두 아부 깐 마깐은 여러 행사와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시의 전경을 보면서 수령의 두리에 인민이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을 몹시 부러워하였다.

귀국후 그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시집 《김정일, 조선의 향도성》을 내놓았다. 시집에는 40여편의 시가 들어있다.

그들뿐이 아니다.

세계 많은 나라 각계층 인사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칭송하는 시들을 창작발표하였다.

딴자니아 모로고로가축공장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가 창작한 시 《김정일동지 그이는 세계혁명의 위대한 상징》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세계자주화의 빛발로
우리 시대의 앞길 밝히시는 그이
그이는 우리의 향도자
그이 모시여 우리 두려움없이 나아가노라
그이는 우리의 긍지
그이 천만년 모심은 우리의 다함없는 소원이여라

세계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얼마나 흠모하였는가는 이 시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주공간을 꽉 채우며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정 원 준

걸출한 사상리론가, 사회주의와 정의의 수호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네팔, 몽골, 단마르크에서 11일과 12일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전 네팔정부 수상 마다브 꾸마르 네팔은 넓은 포용력과 감화력, 세련된 령도력으로 세계인민들을 이끄신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을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심으로써 조선은 위대한 나라로 더더욱 존엄떨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중앙위원회 총비서 씨.삐.마이날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찬양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류가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힌 위대한 사상이며 김정일각하께서 전면적으로 구현하신 선군정치는 인민의 운명을 지킨 보검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질수 있은것은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가 있기때문이다.

진보적인류는 정의를 수호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위원장 즈.홍보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는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부강한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들이시다,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훌륭하게 발전하여왔다,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사회주의와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길이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네팔,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회고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 업적토론회가, 메히꼬에서는 강연회가 10일과 11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가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은 전세계가 공인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절세위인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격찬하였다.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고 찬양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브라질, 요르단인사들이 10일과 1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아멜리누 괴베이루는 사상리론의 대가, 령도의 거장,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고 김정일령도자처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인을 력사는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쑤다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에 맞서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될 때에도 조선의 사회주의가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은것은 그이의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그이에 의하여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김정일각하의 한생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동족대결흉심은 감출수 없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보수패거리들은 이전의 《대북정책》을 수정보충한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 저들이 입밖에 낸적도 없는 《비핵평화》니, 《경제협력》이니, 《공동번영》이니 하는것들을 두루 쏘아박았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평화에 대한 《청사진을 갖춘 정당》이라고 스스로 피여올리면서 수정된 내용을 《당헌, 당규에도 반영》하겠다고 희떱게 놀아대고있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에 《평화》와 《협력》의 보자기를 씌워놓았지만 거기에서는 대결과 전쟁의 냄새만 짙게 풍기고있다. 그것은 사실상 저들의 골수에 꽉 들어찬 동족대결의 흉심을 가리우기 위한것으로서 과거 보수《정권》들이 내들었던 《비핵, 개방, 3 000》이나 《신뢰프로세스》와 결코 다를바 없다.

《자유한국당》것들이 새로운 《대북정책》실현의 전제조건으로 그 무슨 《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것을 내들고 북남관계를 핵문제와 억지로 련결시킨것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보수패거리들은 새로 고안해낸 《대북정책》에 대해 광고하면서 《선비핵화에 따른 평화추진》이니, 《비핵화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이니 하고 떠들어댔다. 바로 여기에서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사이에 대결의 빗장을 깊숙이 지르기 위한 보수패거리들의 교활한 술책이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비핵, 개방, 3 000》과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극단적인 동족대결각본을 꾸며낸 리명박, 박근혜패당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도발적인 《핵페기》소동에 미쳐날뛰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마련된 지금 《자유한국당》것들은 고질적인 악습을 되살리면서 대결의 전철을 또다시 밟고있다.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으면서 《평화》와 《협력》의 말끔한 거짓말로 민심을 끌어당겨 더러운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는것이 역적패당의 속심이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조선반도의 현정세국면과 남조선민심에 역행하며 대결정책을 계속 고집할 경우 위기에서 헤여날수 없다는 우려로부터 그것을 일부 완화하거나 바꾸는 흉내를 냈지만 부질없는것이다. 반역당의 새 《대북정책》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도 다 부정하는 대결전쟁정책이다.

까마귀 백번 분칠해도 백로로 될수 없듯이 《자유한국당》의 보수패당이 제아무리 《평화》와 《공동번영》의 면사포를 뒤집어써도 《전쟁당》, 《대결당》, 《반통일당》으로서의 추악한 본색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해내외의 우리 겨레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인 《자유한국당》은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민심을 우롱할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시대밖으로 사라져야 한다.

심 철 영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중지를 요구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와 일본시민단체 성원들이 15일 도꾜에서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당국이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도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철회할것을 권고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본당국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책동을 중지할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차별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렸다.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노린 《자유한국당》의 방송압박책동

보도에 의하면 14일 《자유한국당》이 당 상임위원장, 간사단련석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평양공동선언리행에 떨쳐나선 남녘민심을 전한 《KBS》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대책을 모의하였다.

원내대표 라경원은 《KBS》방송이 정치적편향성이 지나쳐 북을 찬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방송수신료징수를 금지할수 있는 법안과 중간광고를 무력화하는 《방송법》개정안을 준비, 검토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이자는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KBS》방송과의 기자회견에 나서지 말라는 통보문을 일률적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한국당이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통제에 나섰다.》고 비평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이 력대로 언론을 제 입맛에 맞게 통제하며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의 도구로 리용해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세기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언론관련법들을 조작하여 집권세력의 독재통치를 뒤받침하게 한 중심에는 이 패거리의 조상들이 서있었다.

이보다 앞서 1950년대 중엽 《자유한국당》의 조상인 《자유당》패거리들은 테로단을 이끌고 관료배들의 부정행위를 비난한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하는 강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어용신문사들이 방송까지 독점할수 있게 언론관련법을 뜯어고친 장본인도 바로 이 패거리이다.

이 무리가 내세운 집권자라는것들이 언론사 사장들을 제멋대로 교체하고 나중에 《자주민보》와 같이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을 페간하는것과 같은 파쑈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에 《KBS》방송에 대한 압박음모를 꾸미는것도 과거 집권시기 언론을 저들의 통치수단으로 길들여오던 독재적악습의 재현이다.

《자유한국당》의 이 치졸한 놀음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의 부당한 협박소동에 항의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진보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룡산미군기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부당한 협박소동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얼마전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가 미군유지비증액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기지들에서 일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이 한푼도 받지 못한채 해고당할수 있다고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여 저들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비렬한 협박행위라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가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미군유지비증액강요를 당장 철회할뿐아니라 로동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대미, 대일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급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17일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대미, 대일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그 누가 집권하든 로씨야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내부정치싸움을 위해 세계공동체의 리익과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 및 국제안전을 희생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로씨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하고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이전 쏘련과 미국이 걸머졌던 제한조치들을 중국과 기타 나라들에 확산시키려 하고있다고 까밝히고 로씨야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쌍무조약을 유지할것을 주장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과의 평화조약체결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조약을 체결하자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는것은 모든 대화와 회담에서 불가분리적인 첫걸음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란 미국의 제재책동 비난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이 17일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비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들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적인 경제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이란내부에서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며 국방력을 약화시키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적들의 제재책동에 타격을 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날로 격화되는 모순과 대립

며칠전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련방검찰이 빠른 시일안에 중국정부와 련계된 해커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커들은 미국의 기술봉사업체들에 침투하여 손님들의 네트워크에서 영업비밀을 수집하고 보안망을 뚫고들어가 미국기업들과 정부기관 수십곳에 접근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한다.

중미관계에는 화위기술유한공사의 수석재무관에 대한 체포사건으로 불화의 씨가 또 하나 심어졌다. 카나다의 한 재판소가 수석재무관에 대한 보석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전자감시발목걸이를 착용하고 하루 24시간 감시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

지난 1일 무역전쟁을 벌리던 중국과 미국이 90일동안 정화를 실시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으나 중국인에 대한 체포, 사법처리발표와 같은 미국의 공격적인 조치들이 련속적으로 취해지고있다.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의 행위가 그 성격에 있어서 매우 나쁜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앞으로 미국측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것이다.》는 강경립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해소될것 같던 중국과 미국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격화될것이라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은 중국의 해킹문제와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들을 통한 도청문제를 크게 떠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여왔다. 중국은 미국이 내돌리는 여론이 타당한 증거가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있다.

중국을 압박하는데 일본이 합세하고있다.

최근 언론들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설비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을 금지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잇달아 일본정부는 회의를 열고 그에 대하여 정식 결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으려는 속내를 안고있는 미국이 도청문제를 내들고 동맹국들에 화위기술유한공사의 통신장비들의 사용을 금지할것을 요구해온 사실과 련관시켜 보고있다.

지금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의 커다란 압력을 받고있다. 미국은 일본의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을 상대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아베정권은 피할수 없는 하수인의 처지로부터 상전인 미국에 그 어떤 대항조치도 취하지 못하고있다. 당국의 굴욕적인 처사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대미자동차수출에 또 차단봉을 내리우려 하고있다.

지난 10월 미통상대표부 대표는 국회에 행정부가 다음해 1월 중순에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무역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과의 쌍무무역협정과 관련한 협상에 착수할것이라는데 대해 통지하였다. 그는 미국수출업자들이 수십년동안 일본과의 무역에서 형성된 만성적인 불균형으로 큰 손해를 보고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관세장벽들을 제거하고 무역균형을 맞출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일본경제는 수출주도형경제이다. 자동차수출은 일본의 대미수출의 30%를 차지한다. 이 분야에서 일본은 막대한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있다.

이것을 미국이 더이상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 일본으로서는 화가 동한 미국을 얼어넘겨야 할 진상품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런 속에서 일본정부가 중국의 화위기술유한공사와 중흥통신공사의 설비구입과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화위공사와 중흥공사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에 대하여 밝히고 일본측이 쌍방관계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중미모순관계가 격화되면서 중일관계도 보다 악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나날이 발전하는 태양에네르기산업

태양에네르기는 자연계에 풍부한 에네르기원천중의 하나이다. 많은 나라들이 태양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브라질에서는 태양에네르기산업이 장성추이를 보이고있다.

세계적으로 브라질은 태양에네르기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적합한 나라들중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이 나라에서 태양에네르기산업은 수익이 높다고 한다.

브라질은 전력수요의 80%를 수력에 의존하고있었다. 그러나 최근년간 계속되는 가물로 수력에 의한 전력생산은 난관에 부닥쳤다. 결과 전기가격이 상승하였다. 이로부터 브라질은 태양에네르기산업에 힘을 넣고 이를 장성시키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설치한 2 700개의 태양에네르기생산계통이 지난해에는 7 000개로 늘어났으며 오늘날에는 근 4만개에 달하고있다.

태양에네르기산업의 경제적잠재력은 거대하다.

브라질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가서 이 나라의 태양에네르기시장규모가 약 270억US$에 달할것이다.

어느 한 기상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리오 데 자네이로와 같은 도시에서는 태양빛만 가지고서도 매일 사와용더운물을 1시간동안 얼마든지 공급할수 있다고 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태양에네르기리용을 적극 장려하여 주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이 나라가 2012년에 분산적인 태양에네르기발전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때로부터 주택들의 지붕에 태양빛전지판들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사람들은 쓰다남은 전기를 국가전력망에 넣고있다.

어느 한 시의 주민은 태양빛전지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중에서 60%는 가정에서 사용하며 나머지는 국가전력망에 넣어주고 보수를 받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일 본 반 동 들 의

로골적인 군사대국화책동

일본반동들이 중국의 군사력을 걸고들면서 군사대국화책동에 더욱 발광하고있다.

일본당국은 18일 각료회의에서 《방위계획대강》과 앞으로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간 사상 최고액수인 27조 4 700억¥규모의 군사비가 투입된다고 한다.

또한 《자위대》의 호위함인 《이즈모》호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스텔스전투기 《F-35B》를 탑재하기로 하는 한편 항공모함용전투기를 포함하여 《F-35》스텔스전투기 100여대를 구입하여 앞으로 그 수를 약 150대로 늘일것을 획책하고있다.

외신들에 의하면 일본당국자들은 중국의 군사력을 거들며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현저히 빠른 속도로 엄중해지고있다느니, 《싸이버반격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느니 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경영형편 악화

도이췰란드에서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이 악화되고있다.

18일 뮨헨에 있는 경제연구소가 밝힌데 의하면 현재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신용지수가 한달전에 비해 1점 떨어졌다.

한편 미국에서 10월에 상품무역적자가 772억US$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1.3% 더 많은것이라고 미상무성이 밝혔다.

일본에서도 11월에 상품무역적자가 7 373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2 880억¥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에서 9월에 국내총생산이 7월에 비해 2.5% 감소되였다. 10일 이 나라 내각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파업과 시위

오스트랄리아의 남부오스트랄리아주에서 얼마전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파업과 집회가 벌어졌다.

파업과 집회에 참가한 수백명의 교원들은 당국이 교육자들의 한심한 생활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날 주적으로 약 200개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오끼나와현에서 14일 미군기지설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현의 나고시에서 후뗀마미공군기지가 옮겨앉게 될 헤노꼬앞바다를 메우기 위한 흙, 모래투입이 시작된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시위자들은 공사를 즉시 중지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상식

특이한 지역들

지구상에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현상들이 기록된 지역들이 적지 않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1.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곳

세계에서 제일 습한 곳은 콜롬비아의 쵸꼬주이다.

이곳의 년평균강수량은 1만 1 770㎜에 달하며 비는 주로 저녁시간에 내린다.

2.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곳

미국의 베이커산스키장은 1998년 겨울부터 1999년까지의 강설량이 28.96m에 달하였다. 베이커산스키장은 세계적으로 눈이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이다.

3. 제일 외진 륙지

남극대륙의 중심부분은 세계에서 제일 외진 륙지이다.

4. 제일 건조한 곳

칠레의 아리까에서는 1903년 10월부터 1918년 1월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시간이 제일 긴 기록을 세운 이곳은 1년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5. 바람이 제일 세게 부는 곳

남극대륙의 코먼웰스만은 기네스세계기록집편찬위원회가 인정한 세계에서 바람이 제일 세게 부는 곳으로서 바람속도는 시속 240㎞에 달한다.

6. 제일 외진 섬

남대서양에 있는 부베섬은 노르웨이에 속해있다.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륙지는 동북쪽으로 2 580㎞ 떨어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본사기자

협조

중국과 만마가 16일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4일 가나와 부르끼나 파소는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데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또한 12일 딴자니아와 에짚트는 딴자니아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고대무덤 발굴

에짚트남부의 아스완시에서 고대무덤이 새로 발굴되였다.

B. C. 1550년-B. C. 1292년에 존재한 에짚트의 18대왕조시기에 건설된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는 무덤칸과 통관, 50구의 유골이 발견되였다고 한다. 13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총기류범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11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한 범죄자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서 마구 사격을 가하여 4명을 살해하고 여러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조선중앙통신】

ㄱ-181202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